

# 嘉藍 李秉岐의 書誌觀 攷\*

- 書卷氣와 관련하여 -

A Study on Garam Lee Byuong Kee's Perspective on Korean Literature

박 영 학 (Bak, Young-Hak)\*\*

정 현 옥 (Jung, Hyun-Wook)\*\*\*

## ◁ 목 차 ▷

- |                |                 |
|----------------|-----------------|
| 1. 서 론         | 3.3 시조·문선집      |
| 2. 이병기의 생애와 저작 | 4. 가람의 書誌觀      |
| 2.1 생애         | 4.1 書卷氣         |
| 2.2 논저         | 4.2 고전과 가람의 서권기 |
| 3. 논저 해제       | 5. 결 론          |
| 3.1 공저         | <참고문헌>          |
| 3.2 고전주해       |                 |

## < 초 록 >

가람 이병기는 현대 시조 중흥조로, 국문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명성에 비해 서지학자 이병기에 대한 관심은 덜한 편이다. 이병기가 누리는 명성은 그 바탕에 고전에 대한 서지학적 깊은 이해가 깔려 있다. 이병기는 고전을 추적하여 비평의 기준을 세운 주석가이다. 확실한 어학적 토대와 古歌謠를 깊이 이해한 식견에 바탕 하여 전통에서 출발했으나 그 전통과 결별하고 다시 시류에 초월한 시조 중흥의 위치에 섰다.

서지학자로서 이병기가 남긴 업적은 『한중록』·『인현왕후전』·『역대시조선』·『의유당일기』·『近朝內簡選』·『於于野談』·『가루지기타령』 등 귀중한 고전문학 작품을 발굴·번역·교주한 점이다. 이병기의 이런 고전 감식안을 ‘書卷氣’로 명명할 수 있다.

要語: 가람, 李秉岐, 書卷氣, 고전문학

\* 이 글은 2011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원광대학교 정치행정인문학부 교수(yhbak@wku.ac.kr)

\*\*\* 원광대학교 정치행정인문학부 교수(jungyun@wku.ac.kr)

접수일: 2011년 12월 11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Garam Lee Byuong Kee has long been known as a scholar who had made a notabl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style Korean poetry. However, his perspective on Korean literature did not attract much of researchers' concern, when compared with his scholastic fame. Lee's fame is firmly rooted on his in-depth understanding on the classical literature. He was one of the annotators who critically reviewed the classics and set up the reference of criticism. His scholastic life has undergone a long journey, He originally started from the traditional school, grounded on the sound understanding of linguistics and old poetry. However, before long, he separated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 and moved onto the renaissance movement. At the final stage, he was standing on the front line which had dreamed of writing a poem transcendent from the time and space. As a Korean literature scholar, he found out such invaluable writings as *Hanjungnok*, *Inhyun-Wanghu-jeon*, *Yeokdae-sijoseon*, *Euiyudang ilgi*, *Kurjo-naeganseon*, *Ou-yadam*, and *Karujigigtaryeong*. He also translated and annotated them from a modern perspective. His approach shown in these works could be named as "Seogwongi".

Key words: Garam, Lee Byuong Kee, "Seogwongi", classical literature

## 1. 서론

이병기(李秉岐, 1891~1968)는 시조 <난초>로 더 잘 알려져 있다.<sup>1)</sup> 이병기를 따라다니는 호칭을 보면 그가 초창기 국문학을 일군 선도적 학자임을 알 수 있다. 가람 이병기(이하 ‘가람’과 ‘이병기’를 병용함)를 말할 때는 여러 별칭이 따른다. 시조시인, 국문학자, 교육자, 한글운동가로 불렸다.<sup>2)</sup> 국문학 이론의 초기 뼈대를 세우고 고시조를 혁신하여 현대시조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선 시조 중흥조이다.

가람 이병기가 남긴 시조는 『가람시조집』, 『가람문선』에, 미발표시조는 『일기』 속에 총 1,000여 수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로서는 시조의 최다 창작자이었다.<sup>3)</sup> 1906년부터 임종 전날까지 쓴 일기는 한국문학사·국어사·사회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이 가운데 극히 일부가 『가람문선』에 소개되었다.

<시조는 혁신하자>는 논지는 동시대의 낡은 시조 규범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시조를 창작하자는 주장이다. 실정 실감을 쓰고 한자 투어를 배제하는 등, 격조의 변화, 세심한 형식 배려 등등을 주문하였다.

그가 남긴 논저작은 1948년 『意幽堂日記』, 『近朝內簡集』 등, 주로 譯註 간행이다. 1954년에는 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白鐵과 공저 『國文學全史』를 발행하였다. 저서와 역서는 『嘉藍時調集』, 『歷代時調選』, 『仁顯王后傳』, 『意幽堂日記』, 『近朝內簡選』, 『要路院夜話記』, 『가루지기타령』, 『國文學全史』, 『국문학개론』, 『가람文選』, 『가람일기』이다.

어쨌든 이병기는 시조시인으로서 현대시조 중흥조로써 국문학자로서 성가가 드높은 반면 그가 생전에 이룬 고전의 감식안과 서지학적 성과는 주목이 덜하다.

이 글은 가람 이병기가 이룬 고서를 살피는 감식안의 전거가 과거 선비들이 추구한 ‘書卷氣’에서 연유함을 밝히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서권기는 가람

1) 최승범, “가람의 한 생 - 그 삶과 기품,” 『가람시조』 제4호(가람시조문학회, 2008), 321.

2) 그에 곁들여 ‘낙천가, 애주가, 장서가, 해학가, 고전수집·주석가, 양화가’로도 불린다.

3) 정지용은 ‘송강이후에 가람이 솟아오른 것이 아닐까 한다.’고 평가하였다(정지용, <발> 『가람시조집』 (문장사, 1939), 99).

이병기가 이룬 서지학적 성과와 그에 합당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 2. 이병기의 생애와 저작

### 2.1 생애

이병기의 본관은 연안이다. 호는 가람(嘉藍/伽藍)·가남(柯南)을 썼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한문을 배웠다.<sup>4)</sup> 1906년 김문수와 결혼하고 1910년 전주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13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남양, 전주제2, 여산공립보통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면서 고문헌을 수집하는 한편 시조연구 및 창작을 시작하였다. 1921년 권덕규·임경재 등과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여 조선말 연구운동에 앞장섰다.

1926년 시조문학을 연구하는 중심에 선 ‘시조회’(詩調會)를 창립하고 다시 1928년 이를 ‘가요연구회’(歌謠研究會)로 개명하고 회원을 넓혔다. 1930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제정위원, 1935년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이 되고 1931년 남부지방을 순회하며 한글과 문학 강연회를 펼치는 한편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문학론을 펼쳤다.

1938년 연희전문학교 강사로 피임되어 대학 강단에 섰다. 1939년부터 『문장』지에 <한중록>·<인현왕후전> 등을 쉽게 풀어쓴 연재를 시작하였다. 한문에 능통한 식견과 넓게 쌓은 한학이 크게 힘이 된 결과이다. 이병기가 이룬 고전연구의 성과이다.

---

4) 이병기 생애는 이병기, 『가람문선』(삼중당, 1975)에 실린 이병기 연보를 바탕 삼아 여러 자료를 섭렵하여 간략하게 재구성하였다. 하나 하나 주를 밝히는 번거로운 작업은 생략하였다. 참고한 문헌은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범우사, 2001), 217.;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 일기(1)』(신구문화사, 1975).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검거된 후, 흥원과 함흥형무소에서 1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하였다. 1943년 출옥한 뒤에는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진사동 생가로 낙향하여 농사짓기와 고문헌 연구에 매진하였다.

1945년 해방직후 다시 서울로 옮겨 1946년 미군정청 편수관,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고전문학에 나타난 향토성>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뒤 단국대학교·신문학원·서라벌예술대학 등에서도 강의를 하였다.

6·25전쟁 중 직접 모은 고서(古書)를 트럭에 실어 고향으로 옮겨 보관한 정성은 유명한 일화이다. 동국대학교·국민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1952년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장에 피임되었고, 이듬해까지 <청구영언과 해동가요>, <시가 문학>, <정읍사의 고찰> 등을 『국어국문학』에, 그리고 국사에 관한 연구와 수필 등을 다수 발표하였다. 1954년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피임되었다.

1956년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 『국어국문학』지에 논문 <별(別) 사미인곡>·<속(續) 사미인곡>을 게재하였다.

1957년 학술원 추천회원이 되었다. 백철과 공저로 『국문학전사』를 간행했다. 10월 한글날 기념행사 후 귀가 도중 뇌일혈로 쓰러져 언어 기능이 마비되었으나 점차 회복되었다.

1958년 교수직을 모두 사임하고 귀향한 이 무렵 <한국서지의 연구>를 『동방학지』에 발표하였다.

1960년 학술원 공로상을 받았으며, 8월에는 학술원 임면회원이 되었다. 1961년 4월에 『국문학개설』을 간행하였으며 전북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62년 대한민국 문화포장 등을 받았다

1966년 고향 수우재에서 요양 중 이병기는 자신의 거둔 연구 성과를 간추려 시조·수필·일기·기행·고전연구로 분류 수록한 『가람문선』을 출간하였다.

가람 이병기는 50여 년 간 꾸준히 <일기>를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78세를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항상 터럭만한 흠결도 남기지 않은 학자이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였으나 ‘창씨개명’을 끝내 거부하였으며,<sup>5)</sup> 『친일문학론』을 적

발한 임종국이 일제시대에 쓴 시와 수필의 어느 단 한 편의 친일문장도 남긴 일 없는 영광된 작가라고 했다.<sup>6)</sup> 스스로 ‘술복, 난초복, 제자복’을 누렸다고 술회하였다고 최승범은 썼다.<sup>7)</sup>

이병기는 전북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진사동에서 태어나 서울과 전주에서 활동하였으며 1968년 11월 29일 생가인 수우재에서 노환으로 타계하였다.

## 2.2 논저

이병기는 거의 독학으로 국문학을 연구하고 시조시를 창작하는 데 열의를 쏟았다. 보통학교 교사 신분으로 古文獻을 수집 연구하였다. 이병기는 1920년 『共濟』 창간호에 처음으로 <수레 뒤에서>를 발표하였다. 1925년에는 『朝鮮文壇』지에 <한강을 지나며>라는 시를 발표하여 시조시인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한국고전을 주석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국문학자로 자리를 굳혔다.

일기는 1906년부터 임종 전달까지 쓴 한국문학사·국어사·사회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이 가운데 극히 일부가 <가람문선>에 소개되었다. 이병기는 시조이론을 세우는데 크게 힘을 썼다. 1926년 최초로 時調會를 발기하고 <시조란 무엇인가>, <율격과 시조>, <시조와 그 연구>를 신문과 잡지에 발표하였다. <시조란 무엇인가>(동아일보, 1926. 11. 24~12. 13)·<시조와 한시>(조선일보, 1927. 1. 5)·<시조는 부흥할 것이냐?>(신민, 1927. 3)·<시조 원류론>(신생, 1929. 1~6)·<시조를 혁신하자>(동아일보, 1932. 1. 23~2. 4)를 포함하여 20여 편의 시조론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시조란 무엇인가>는 시조의 명칭·종류·자수·운율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여 시조 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또한 <시조는 혁신하자>는 논지는 동시대의 낡은 시조 규범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창작하는 데 관심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창작을 모아

5)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185.

6)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39.

7) 최승범, “가람의 한 생 - 그 삶과 기품,” 『가람시조』 제4호(가람시조문학회, 2008), 31.

『嘉藍時調集』(1939)을 간행하였다. 그의 작품은 『가람일기』에 담긴 미발표 시조를 합하면 1,000여 수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병기는 당시로서는 시조의 최대 창작자이었다.<sup>8)</sup>

1938년 『文章』지 창간호에 <恨中錄註解>를 발표하는 등 고전연구에 정진하였다. 1942년 朝鮮語學會 사건에 연루되어 일경에 피검, 함흥(咸興) 형무소에 수감되어 1년 가까이 복역하다 1943년 가을에 기소유예로 출감한 후 귀향하여 농사와 고문헌 연구에 몰두했다.

1948년 『意幽堂日記』, 『近朝內簡集』 등 譯註書를 주로 간행했다. 1954년에는 白鐵과 공동으로 『國文學全史』를 냈다. 저·역서는 『嘉藍時調集』, 『歷代時調選』, 『仁顯王后傳』, 『意幽堂日記』, 『近朝內簡選』, 『要路院夜話記』, 『가루지기타령』, 『國文學全史』, 『국문학개론』, 『가람文選』, 『가람일기』가 있다.

### 3. 논저 해제

#### 3.1 공저

■ 『國文學全史』 (백철·이병기 공저, 신구문화사, 1957년 초판 / A5판. 587쪽)

서문은 두계 이병도, 일석 이희승, 필자인 가람 이병기가 각각 썼다. 목차, 본문, 백철의 후기, 색인 순서로 되어 있다. 서문은 한문학만 받들던 지금까지의 관습을 벗고 우리말과 글로 쓴 문예작품을 중시하고 그 異本까지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한국문학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려는 기본 뜻을 밝혔다.

서론은 한국인이 저술한 漢文學은 국문학의 테두리에 수용하지만, 조선 사람이 조선말과 글로 쓴 순수한 문예작품을 기본으로 삼되 국문학사의 서술 방법은 역사가적 교양을 갖추고, 작가와 작품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강조

8) 정지용은 “송강이후에 가람이 솟아오른 것이 아닐까 한다.”고 평가하였다. 정지용, “발” 『가람시조집』 (문장사, 1939), 99.

하였다. 대체로 편년체를 추종하였다. 제1부 고전문학사, 제2부 신문학사, 부록 國漢文學史로 기술하였다.

제1부 고전문학사제1편은 고대문학에 신화·설화·시가 등을 폭넓게 취급하였다. 시대구분은 삼국, 통일신라, 고려시대로 나누었고, 제2편 近朝文學편은 시조와 가사를 시가문학의 난숙기로 취급하고 고소설을 산문 정신의 맹아기로 서술하였다. 제2부 신문학사에는 제1편 근대적 문학편에 근대와 근대문학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제2장은 전환기의 신문학을 신체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제3장은 민족주의사상과 崔南善의, 李光洙의 선구적 업적, 제4·5장은 1920년대 문예지운동을 중심으로 낭만주의와 자연주의 문학을 취급하였다. 제2편 현대문학은 1930년대와 일제 말기의 프로문학·민족파·해외파·예술파·주지파 등을 폭넓게 취급하였다.

이 책은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이 고전문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창조되었다는 통시적 문학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의 전통단절론은 편견이라는 점을 제기하였다.

### 3.2 고전주해

#### ■ 仁顯王后傳 (박문출판사, 1946)

숙종 때 장희빈과 얽힌 이야기의 주해본이다. 숙종의 첫 왕비인 인경왕후는 김만기(김만중의 형)의 딸이다. 인경왕후는 젊은 나이에 혈육이 없이 서거했다. 그 뒤를 이어 계비가 된 당시 병조판서 민유중의 딸이 곧 인현왕후다.

인현왕후는 6년 동안 태기가 없었다. 왕후는 스스로 시비였으나 매우 총명한 궁인 장씨를 천거하였다. 장씨는 임금의 뜻을 잘 맞추어 총애를 얻었다. 아들(뒤에 경종)을 생산한 후에는 희빈으로 책봉되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모함하여 폐위시키고 왕비가 되었다. 인현왕후는 6년 동안 본결(친정)인 안국동에서 외롭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생각하며 늘 괴로워했다. 장희빈의 언동에 회의를 느낀 숙종은 마침 장희빈이

숙빈 최씨(인현왕후의 나인)를 독에 가두어 죽이려던 사건이 발각되었다. 장씨는 사사(賜死)되고 인현왕후는 복위되었으나 얼마 후 35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인현왕후 일대기를 주해한 책이다.

■ 意幽堂日記 (백양사, 1948, 182쪽)

교주본이다. 수필의 일종이다. 意幽堂關北遊覽日記라고도 한다. 작자는 이희찬의 부인 연안김씨라는 설과 의령남씨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몇몇 학자들이 여러 문헌자료와 고증을 통해 의령남씨가 작가라고 주장하였다. 지금은 의령김씨설이 설득력을 더한다.

구성은 <낙민루> · <北山樓> · <동명일기> · <春日消興> · <永明寺得月樓上樑文>순이다. 묘사가 정확하고 참신 어휘구사가 조선 후기 여성의 대표적인 수필문학으로 볼 수 있다.

■ 근조내간선 (국제문화관, 1948 초판, 102쪽, 가로 12.5cm, 세로 18cm)

체제는 목차, 봉서, 전교, 소지, 우념재수서, 한산유찰,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봉서'에는 선조 어필, 혜경궁 홍씨, 정종어필, 익종어필, 하산궁의 것이 수록되어 있고, 전교는 순원황후 김씨에게 내린 것이다.

■ 한중록 (김동욱과 공동 주해, 민중서관, 1961)

정치적 모략이 난무하는 궁궐에서, 시아버지 영조와 남편 사도세자, 아들 정조, 손자 순조에 이르는 궁중사를 조카의 부탁을 받고 쓰기 시작한 혜경궁 홍씨의 증언이다.

혜경궁이 60 나이에 시작하여 71세 때까지 총 6권을 썼다. 『한중록』은 한글·국한문혼용·한문 필사본으로 현재 약 21종의 異本이 남아 있다.

혜경궁 홍씨는 열 살에 궁에 들어와 영조와 남편 사도세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열여덟에 첫아들이 죽고, 노론인 친정과 소론의 비호를 받는 남편 사이에 끼여 처신이 어려웠다. 사도세자는 영조와 골이 깊었다. 사도세자가 스물여덟

살에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 즉 임오화변의 피해자이다. 이 일로 노·소론이 치열한 정쟁을 펼쳤으며, 혜경궁 홍씨의 친정은 정조의 즉위를 방해하고 그 결과 홍봉한과 정후겸·화완옹주 등이 정조로부터 배척받는다.

정조 사후, 혜경궁 홍씨는 다시 한 번 글을 쓴다. 어린 손자 순조를 향하여 임오화변 일과 정조 즉위를 방해한 일로 죄를 받은 친정집을 사면해 달라는 청원이었다.

■ 요로원야화기 (을유문화사, 1953, 178쪽)

작자는 박두세이다. 野談에 바탕을 둔 고전 수필모음집을 이병기가 교주하였다. 야담은 야사를 기본 삼아 재미나게 꾸민 이야기이다. 매우 풍자적, 해학적, 비판적이다. 조선 후기에 ‘요로원’이라는 주막에서 시골 양반이 서울 양반의 교만과 허세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이야기이다.

■ 가루지기 타령 (국제문화관, 1949, 68쪽)

평안도에서 태어난 ‘옹녀’라는 잡년과 전라도에서 태어난 ‘변강쇠’란 잡놈이 제각기 음란 생활을 일삼는다. 南男北女라는 속언을 뒤엎는 남녀는 각각 반대방향으로 떠난다. 남쪽 태생인 강쇠는 북쪽으로 북쪽 태생인 옹녀는 남쪽으로 가던 중 서로 만나 곧장 지리산에 살림을 차렸는데 어느 날 변강쇠가 장승을 패어 불을 때다가 동티 나서 죽었다.

옹녀는 중, 초라니, 풍각쟁이들에게 강쇠의 장사만 치러 주면 같이 살겠다고 불든다. 그들은 변강쇠의 시신만 만지면 장승의 화를 입어 폭사한다. 강쇠가 장승을 뿔감으로 지계에 가로 걸머지고 왔듯 변강쇠를 장사 지내려던 모든 사람들 역시 지계에 가로 걸머진 시신 신세가 된다. 남녀가 대낮에 상대방의 성기를 들여다보며 서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타령이다.

### 3.3 시조 · 문선집

■ 嘉藍時調集 (A5판. 한지철. 文章社, 1939년 초간, 104쪽)

白楊堂에서 1947년 재판하였다. 편제는 5부로, 모두 71편, 총 193수를 수록하였다. 각 부마다 소표제가 없으며 동일 계열의 작품들을 모아 묶었다.

제1부는 9편 34수, 제2부는 14편 29수, 제3부는 11편 32수, 제4부는 12편 31수, 제5부는 25편 67수와 마지막으로 鄭芝滂의 <발문>을 실었다. 시조의 배행 형식은 3행 일률이다. 3장 배행에 철저하였다.<sup>9)</sup> 이 시조집은 현대시조창작에 새 방향을 제시한 획기적인 성과이다.

■ 가람문선 (A5판. 514면. 신구문화사, 1966)

李熙昇 · 鄭炳昱 · 朴在森을 포함한 총 12명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였다.<sup>10)</sup> 책머리에 저자의 서문을 실고, 본문, 저자연보, 편찬위원의 ‘가람에 대하여’, 편집부가 쓴 ‘가람문선이 나오기까지’의 순으로 편집하였다. 1부는 시조집, 제2부는 일기초, 제3부는 수필 · 기행문, 제4부는 시조론, 제5부는 고전 연구편, 제6부는 雜攷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한글로 쓴 작품 및 민간 구비전승을 문학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 가람일기 -1 (신구문화사, 1975, 문고판 352쪽)

4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써온 가람의 일기 중 1910-30년대의 일상생활을 간결하게 기록한 생활문이다. 1922년 당시에도 움집을 지었다는 일기 기록은 일제하 고난을 힘겹게 건디는 민중의 생활상을 유추하게 한다. 古書에 관심을 둔 이병기의 1921 당시 근황 몇 편을 펴 본다.<sup>11)</sup>

9) 박영학, “가람의 시조와 시조의 세계화 과제,” 『가람시조』 6호(가람시조문학회, 2010), 27.  
10) 『가람문선』에 대한 평가는 林仙默, 『近代時調集의 樣相』 (檀國大學校出版部, 1983)을 전적으로 참고하였으며 번다한 각주는 필자가 임의로 생략하였음.  
11) 이병기, 『가람일기-1』 (신구문화사, 1975), 154-155.

- 6/29(수). 맑다. 불교회에 들렀더니 ‘三綱行實’, ‘二倫行實’이란 책 두 권이 와 있다. 이 책은 일찍 말은 들었으나 보기는 처음이다. 두 책이 다 壬辰倭亂을 치렀고 옛 우리말을 가지고 있는 매우 귀한 책이다. 이제 얻어 보니 얼마나 다행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한별 군이 이 책 가운데 세 대문을 써 달라고 적어 놓은 편지가 있다. 부리나케 썼다. 저녁 밥 먹을 무렵에 한별을 만나 쓴 것을 주고 여관으로 오다.
- 7/4(월). 아침나절에는 안개가 자욱히 끼었고 하늘은 구름이 흐리었다. 불교회로 가서 古山子가 편찬한 ‘大東地志’를 배겼다.
- 7/23(토). 맑다. 불교회로 가서 ‘訓民正音’을 배겼다.

#### 4. 가람의 書誌觀

##### 4.1 書卷氣

가람은 추사 김정희를 추앙하였다. 글의 품격은 기교에 있지 않고 ‘文字香 書卷氣’가 스며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지론이었다. 이를 文字氣라고 줄여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을 『완당집』을 참고하여 헤아려보면 ‘책에서 나오는 기운’ 정도이나 그 의미는 더 깊고 깊다.<sup>12)</sup>

“더구나 예서 쓰는 법은 가슴속에 淸高古雅한 뜻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손으로 나올 수 없고, 가슴속의 淸고고아한 뜻은 또한 가슴속에 <문자향 서권기>가 깃들어 있지 않으면 능히 팔뚝이나 손끝에 나타나지 않으며 또 평범한 해서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모름지기 가슴속에 먼저 문자향과 서권기를 갖추는 것이 隸書(예서) 쓰는 법의 기본이며, 신비한 비결이다.”<sup>13)</sup>

글이란 맑고 깊은 아취가 드러나야 한다는 논지이다. 가람 이병기가 추앙한 추사 김정희의 심미안은 이 지점에 닿는다. 이것을 ‘문자향 서권기’라 하였다. 원래

12) 김정희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완당전집-1』(솔, 1998)을 다듬어 재정리함. 추사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유흥준, 『완당평전-1·2·3』(학고재, 2002)을 참고할 수 있다.

13) 且隸法, 非有胸中淸高古雅之意, 無以出手, 胸中淸高古雅之意, 又非有胸中文字香書卷氣, 不能現發於腕下指頭, 又非如尋常楷書比也, 須於胸中, 先具文字香書卷氣, 爲隸法張本, 爲寫隸神訣,- 卷七.

‘서권기’는 중국의 江西詩派의 제창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그 이후 문예는 물론 서예로 확장되어 미학의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sup>14)</sup>

추사 김정희는 가슴에 서권기가 깃들지 않으면 예서는 물론 해서도 별 볼일 없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슴에 문자향 서권기가 배양되어야(須於胸中, 先具文字香書卷氣)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며 이것이 예서 쓰는 법의 기본이며, 신비한 비결(爲隸法張本, 爲寫隸神訣)이라고 밝혔다.<sup>15)</sup>

또한 난을 치는 법도 이와 같아서 예서 쓰는 법처럼 반드시 먼저 문자향 서권기를 얻어야 한다(蘭法, 亦與隸近, 必有文字香書卷氣然後, 可得)고 했다.<sup>16)</sup>

이렇듯 문자향 서권기는 ‘문자의 향기’와 ‘서권의 정취’라고 풀 수 있으나 그 함축적 의미는 심중하다. 隸書 쓰는 법과 蘭草 치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원용하였지만 모든 글씨와 그림을 비평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였다. 추사 김정희는 이 용어를 『완당집』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의 작품을 비평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근일에는 曹允亨, 俞漢芝 같은 이들이 모두 예법에 깊이 들었으나 다만 文字氣가 적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 李麟祥(1710-1760)의 예법과 화법에 모두 문자기가 있다. 시험 삼아 그의 그림이나 글씨를 살펴보면 그 문자기를 얻은 다음에야 그림이나 글씨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近日如曹知事 俞綺園諸公, 皆深不[入之誤?]隸法, 但少文字氣, 爲恨恨處, 李元靈隸法 畫法, 皆有文字氣, 試觀於此, 可以悟得其文字氣, 然後 可爲之耳).”<sup>17)</sup>

曹允亨(1725-1799), 俞漢芝(1760-?), 李麟祥(1710-1760)은 모두 예법이 깊으나 다만 문자기가 적어 매우 안타깝다는 평가이다. ‘문자기’를 얻어야 비로소

14) 송민 저, 광노봉 역, 『중국서예미학』 (동문선, 1998), 127 ; 정수자, “가람시조의 고전 미학적 풍격,” 『가람 이병기의 문학과 사상』, 가람이병기 탄생 120주년 기념학술대회, 원광대 송산 기념관(2011. 9. 23-24), 62 재인.

15) 『阮堂集』 卷七.

16) 『阮堂集』 卷二.

17) 『阮堂集』 卷七.

그림이나 글씨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추사 김정희는 앞선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서권기’를 비평의 기준으로 삼았다. 독서 없이 쓰는 글씨는 글씨의 노예(書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선 선비들은 시서화의 감식안이었다. 손끝의 잔재주 대신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는 말이다.

## 4.2 고전과 가람의 서권기

가람이 고전에 심취한 것은 고전부흥론에 자극받은 바가 크지만 조선의 전통을 잇는 한 방법으로, 고전 속에 조선의 얼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서권기를 심신 단련의 한 방법으로 알았다.

가람 이병기는 시의 진리를 논하는 과정에서 미의 4범주를 “미란 세포의 미, 整齊의 미, 조형의 미, 통일미”<sup>18)</sup>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은 고전주의에 갖든 “靜穩한 미, 雅趣, 抑制, 秩序, 明哲性”<sup>19)</sup>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가람은 이런 고전관을 고문헌을 살피는 서지방법의 준거로 삼았다. 이병기가 쓴 『역대시조선·서』는 고전을 보는 가람의 서지 방법을 엿보게 한다.

“우리는 저의 역사를 알아야 함과 같이 고전을 저버릴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야 우리의 고전 연구를 하자는 것은 뒤진 일이다. 그래도 앓을 수 없다. 앓은 건 다 앓아야 한다. 성급함 보다는 차근하고 찬찬하고 꾸준하여야 한다. 우리가 몇 천 년 동안 역사·문화·문학 등을 훌륭히 지녔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 (중략) … 고문헌이라고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요, 전통이라고 그대로 좇을 것이 아니요, 제가 스스로 살피고 만지고 깨닫고야 정말 그 가치와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다.”<sup>20)</sup>

가람 이병기의 고전관은 옛것이라고 다 고전에 드는 것은 아니고 오직 “차근하고 찬찬하고 꾸준하게” 탐구하여 “그 가치와 생명이 드러나”야 한다는 논지이다.

18)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9), 480.

19) 강대건 역, 『고전주의』 (서울대출판부, 1978), 3.

20)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9), 451.

“제가 스스로 살피고 만지고 깨닫고야 정말 그 가치와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다.”는 언급은 고전연구자가 스스로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찬찬히’, 즉 치밀하게 ‘스스로 살피고’, ‘만져 보는’ 집착을 말한다. 이 내용은 『역대시조선』 <서>에 언급한 “차근하고 찬찬하고 꾸준하게”와 맥이 닿는 논지이다.

“학문을 함에는 … (중략) … 書卷과도 잠시 떠날 수 없다. 책속에 萬鐘祿과 玉같은 미인이 있다 함은 오히려 속된 말이요, … 讀書를 함에는 ‘尋章摘句’나 見識만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즉 심신까지라도 수련하자는 것이다. 독서를 잘 할 이는 그야말로 ‘心廣體胖 脢面盎背’이다.”

이 말은 독서란 ‘좋은 문구를 찾고(尋章摘句) 견식을 넓히자는 것’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 심신을 수련하여 ‘몸과 마음이 활달하고 앞뒤가 상함’(心廣體胖 脢面盎背)하는 경지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生死念까지도 초월한 힘”을 얻는 것이다.

가람은 이런 서권기에 이른 역사적 인물로 조선에서는 추사 김정희를, 중국에서는 이백과 두보를, 그리고 깊이 면려하는 예는 선문의 5조 홍인 법하의 신수를 들었다.

“추사의 글씨를 배우는 이가 추사의 독서법은 배우지 않고 다만 그 예법을 익히다가 만다. … 그 한 俗姿일 뿐이요, 經史子書와 金石五千卷의 氣運을 膝下에 움직이는 추사는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이다. 一行一字는 고사하고 一點一畫이라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추사의 글씨는 그 기교만이 아니라 書卷氣로 써 이룬 것인 까닭이다.”<sup>21)</sup>

추사는 經史子書와 金石五千卷의 氣運을 무릎 밑에 거느리는 폭 넓은 독서인으로 평가한다.<sup>22)</sup> 가람 이병기가 것처럼 찬탄한 추사 김정희<sup>23)</sup>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중국 清代 考證學을 학문방법론으로 삼은

21) 이병기, <서권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63.

22) 추사의 ‘금석문오천권’이란 대략 오천 자로 이루어진 경전, 즉 넓은 뜻의 학문 사상 등으로 쓰였다(정혜린,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신구문화사, 2003), 206).

23)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정조 10, 충남 예산~1856, 철종 7).

北學派의 한 사람이다. 조선의 實學과 청의 학풍을 융화시켜 경학·금석학·불교학 등 다방면에 걸친 학문 체계를 수립한 추사의 그런 이력 가운데서도 글씨란 끊임없는 갈고 닦음으로 얻는다는 데 가람은 방점을 찍었다.

가람이 추사 김정희의 미의식인 ‘書卷氣’에 주목한 것은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넘쳐 그림과 글씨가 된다”는 데 머문다.

한편 가람은 이백을 서권기 넘치는 학자로 평했다. 이백은 배운 적이 없는 발해 문자를 한 번에 알아본 심미안의 소유자였다.

“...위대한 천재는 위대한 서권기를 흡수하여서 발휘될 것이다. 玄宗의 御座 앞에 滿朝文武가 한 字도 모르는 渤海國書를 대번 보고 翻讀하던 李白이라든지.”<sup>24)</sup>

번독(翻讀)은 번역하여 읽었다는 뜻이다. 가람은 서권기의 극치를 조정에 모인 수많은 문무백관 가운데 오직 이태백이 발해국의 외교문서를 즉석에서 번역하여 읽어 낸 것을 예로 든다. 이와 더불어 가람 이병기는 두보를 같은 경지에 두었다.

“讀破書萬卷下筆如有神이라 하던 杜甫라든지도 다 끔찍한 書卷氣를 가졌던 것이다.”<sup>25)</sup>

두보의 신들린 글씨는 만권독서의 산물임을 말한다. 만권의 책을 읽은 후 귀신이 쉰듯 붓을 놀린다는 평가다. 이런 절승한 경지가 바로 서권기의 발현이다. 그래서 가람은 “하마로 나는 이렇게 書卷氣를 鼓吹하고 싶다.”<sup>26)</sup>고 썼다.

이처럼 가람은 독서의 즐거움을 書卷氣의 함양에 두었다. 가람은 그런 서권기를 “法悅이요, 解脫”<sup>27)</sup>이라도 달리 표현하였다.

24) 이병기, <서권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64.

25) 이병기, <서권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64.

26) 이병기, <서권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65.

27) 이병기, <서권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63.

그런 바람은 가람의 시조 <창> 제 2수에 그대로 용해되어 드러난다.

너의 앞에서는 술 먹기도 두렵다/ 너의 앞에서는 參禪기도 어렵다/ 珍貴한  
古書를 펴어 서권기나 기를까

창 앞에서는 술 먹기도 두렵다고 한다. <창>은 우주를 감득하는 통로이다. 그런 절제는 “진귀한 고서를 펴고 서권기를 기르려”는 마음이 2수 종장에 잘 드러나 있다. 서권기에 심취하려는 가람 시인 자신의 바람이다. 그런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가람은 죽을 때까지(“그러나 나의 臨終도”/3수 종장) 허투루 살지 않고 서권기 터득에 매진하겠다는 심경의 한 자락을 펼쳐 보인다. <창>의 둘째 수 종장 ‘진귀한 고서’는 곧 고전을 지칭한다. 고서 = 고전 = 서권기의 원천이다. 고전은 서권기를 고취하는 원천임을 시사한다.

가람은 고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조 <고서> 2수에서도 숨김없이 드러낸다.

좀 먹다 씹어지다 하찮이 남은 그것  
푸르고 누르고 千年이 하루 같고  
검다가 도로 흰 먹이 이는 향은 새롭다

“검다가 도로 흰 먹이 이는 향은 새롭다.”는 구절은 고서를 펴 고증에 임하는 서지적 태도의 은유이다. 비록 먹물이 퇴색은 하였으나 그 물 먹에 깃든 책의 내용, 곧 “향은 새롭다”는 뜻은 고증의 결과로 얻은 眞意 체득에 희열을 느끼는 심상의 표현이다.

끈질기게 매달려 고증의 결실에 이르는 가람의 태도는 <산유화 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가람은 이런 태도로 우리나라에 <산유화>라는 꽃이 실재하는 지를 꼼꼼하게 고문헌을 추적하여 규명한다. 이것은 가람 이병기의 일관된 서지 태도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가람은 그 근원을 추적하고 ‘매 나리’의 한자식 표기로 결론짓는다.<sup>28)</sup>

28) 이병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48-155.

이처럼 서권기란 가람에게 정성스럽게 책을 읽고 살피는 끈질긴 작업과 다르지 않다. 이런 노력은 앞서 살핀 신수와 혜능의 계(揭)를 예로 든다. 禪門의 제 5조 홍인화상의 최상승 제자인 신수는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닦아서 남은 티끌을 없애리라”(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莫使有塵矣)<sup>29)</sup>고 썼다. 그런데 일자무식인 혜능은 옆 사람에게 신수의 글 뜻을 묻고 자기 뜻을 대신 적어 달라고 부탁한다. 혜능은 “본래 보리라는 나무는 없고 명경대 역시 없다. 불성이란 늘 깨끗한 데 어디에 티끌이 있다고 하리”(菩提本無樹 明鏡亦無臺 佛性常清淨 何處有塵矣)<sup>30)</sup>라고 말했다.

신수는 오래오래 닦아 도를 깨치는 ‘漸修’ 지향인 반면 혜능은 천재성을 발휘하여 문득 깨닫는 ‘頓悟’ 지향이다. 가람은 신수의 부지런한 면려를 높이 평가하였다. “한 사람의 지혜나 상상력인 무한한 것이 아니다 … 배울 건 배워야 한다.”<sup>31)</sup>는 것이다. 가람은 ‘재주’보다 書卷氣를 더욱 중시하고 그 서권기는 노력의 산물임을 강조하였다. 가람이 신수 편에 손을 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 5. 결 론

가람 이병기는 현대 시조 중흥조로, 국문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명성에 비해 서지학자 이병기에 대한 관심은 덜한 편이다. 이병기가 누리는 명성은 그 바탕에 고전에 대한 서지학적 깊은 이해가 깔려 있다.

이병기는 고전을 추적하여 비평의 기준을 세운 주석가이다. 확실한 어학적 토대와 古歌謠를 깊이 이해한 식견에 바탕 하여 전통에서 출발했으나 그 전통과 결별하고 다시 시류에 초월한 시조 중흥의 위치에 섰다. 서지학자로서 이병기가 남긴 업적은 「한중록」·「인현왕후전」·「역대시조선」·「의유당일기」·「近朝內簡選」·

29) 이병기, <서권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62.

30) 이병기, <서권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62.

31) 이병기, <서권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64.

『於于野談』·『가루지기타령』 등, 귀중한 고전문학 작품을 발굴·번역·교주한 점이다. 이병기의 이런 고전 감식안을 ‘書卷氣’로 명명할 수 있다.

가람 이병기의 고전관은 옛것이라고 다 고전에 드는 것은 아니고 오직 “차근하고 찬찬하고 꾸준하게” 탐구하여 “그 가치와 생명이 드러나”야 한다는 논지이다. “제가 스스로 살피고 만지고 깨닫고야 정말 그 가치와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다.”는 언급은 고전연구자가 스스로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찬찬히’, 즉 치밀하게 ‘스스로 살피고’, ‘만져 보는’ 접촉을 말한다.

가람은 이런 역사적 인물로 신수, 추사 김정희, 이백, 두보를 들었다. 5조 홍인대사의 의발을 전수 받은 6조 혜능보다 신수를 높이 평가한 것은 오랜 세월동안의 각골면려 때문이다.

추사는 經史子書와 金石五千卷의 氣運을 무릎 밑에 거느리는 폭 넓은 독서인으로 평가하였다. 가람 이병기는 추사를 통해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청대 고증학을 자신의 학문방법론으로 삼았다. 가람이 추사 김정희의 미의식인 ‘書卷氣’에 주목한 것은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넘쳐 그림과 글씨가 된다”는 데 머문다. 높고 고아한 기품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끝없이 책을 가까이하여(讀破書萬卷下) 서권기를 습득하는 일이다.

한편 가람은 이백을 서권기 넘치는 학자로 평했다. 이백은 배운 적이 없는 발해문자를 한 번에 알아본 심미안의 소유자였다.

이와 더불어 두보의 신들린 글씨를 만권 독서의 산물로 보았다. 만권의 책을 읽은 후 귀신에 씌 듯 붓을 놀린다(讀破書萬卷下筆如有神)는 평가다. 이런 절승한 경지가 바로 서권기의 발현이다. 그래서 가람은 “하므로 나는 이렇게 書卷氣를 鼓吹하고 싶다.”고 썼다. 그런 바람은 가람의 시조 <창>에 “珍貴한 古書를 펴어 서권기나 기를까”라고 노래하고, <고서>에서는 “좀 먹다 씹어지다 하찮이 남은 그것/푸르고 누르고 千年이 하루 같고/검다가 도로 흰 먹이 이는 향은 새롭다.”고 하였다. “검다가 도로 흰 먹이 이는 향은 새롭다.”는 구절은 고서를 펴 고증에 임하는 서지적 태도의 은유이다. 비록 먹물이 퇴색은 하였으나 그 물 먹에 깃든 책의 내용, 곧 “향은 새롭다”는 뜻은 고증의 결과로 얻은 眞意 체득에 희열을 느끼는 심상의

표현이다. 옛것을 살피 새롭게 창안(復古創新)하는 것이 가람의 서지적 태도의 은유이다. 가람이 좀 먹고 퇴색한 천년 연륜의 고서를 살피는 일은 서권기에 바탕한 우주와 관통하려는 정신의 발현이 아니고는 기뻐할 수 없는 작업이다.

끈질기게 책에 매달려 고증의 결실에 이르는 가람의 태도는 <산유화 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산유화>라는 꽃이 실재하는지를 꼼꼼하게 고 문헌을 추적하여 결국 ‘매 나리’의 한자식 표기로 결론짓는다.<sup>32)</sup>

이처럼 서권기란 가람에게 정성스럽게 책을 읽고 살피는 끈질긴 작업과 다르지 않다. 가람은 꼼꼼하고 찬찬하였다. 가람은 그런 서권기를 서지학의 한 방법으로 설정하여 서지 판별 및 비평의 기준을 삼았다. 가람에게 서권기는 “法悅이요, 解脫”<sup>33)</sup>이었다.

---

32) 이병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48-155.

33) 이병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163.

<참고문헌>

- 박영학. “가람의 시조와 시조의 세계화 과제.” 『가람시조』 6호(가람시조문학회, 2008).
- 이병기. “서권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 정수자. “가람시조의 고전 미학적 풍격.” 『가람 이병기의 문학과 사상』. 가람이병기 탄생 120주년 기념학술대회. 원광대 승산기념관(2011. 9. 23-24).
- 정지용. “발” 『가람시조집』. 문장사, 1939.
- 최승범. “가람의 한 생 - 그 삶과 기품.” 『가람시조』 제4호(가람시조문학회, 2008).
- 강대건 역. 『고전주의』. 서울대출판부, 1978.
- 김정희. 민족문화추진회 역. 『완당전집-1』. 솔, 1998.
-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9.
- 이병기. 『가람문선』. 삼중당, 1975.
- 송민 저. 광노봉 역. 『중국서예미학』. 동문선, 1998.
-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일기-1』. 범우사, 2001.
- 유홍준. 『완당평전-1·2·3』. 학교재, 2002.
- 이병기. 『가람일기-1』. 신구문화사, 1975.
- 林仙默. 『近代時調集의 樣相』. 檀國大學校出版部, 1983.
- 정혜린.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신구문화사, 2003.
-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 『阮堂集』 第二卷.
- 『阮堂集』 卷七.

